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진실을 만나다-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4월 재보선 안철수 진영 움직일까 ▶5
조직폭력배가 정계까지 넘봐? ▶6
기아차 62만대 증산체제 차질 ▶8
빛바랜 기억, 빛나는 기록…강봉규 사진전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432호 1판 2013년 2월 27일 수요일 (음력 1월 18일)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문화수도 광주가 출발점

문화재정 2% 달성·기본법 제정 추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전폭지원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국정현안으로 '문화융성'을 꼽아 국책사업인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컬쳐 노믹스'와 가장 부합하는 현안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골자로 한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정부의 문화정책이 이미 추진중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전폭지원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기사 2·3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 천명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문화재정 비율 2% 달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인수위도 지난 21일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 문화 관련 분야를 이례적으로 세 번째에 넣었고 문화재정 2% 달성 계획을 다시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또 문화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게임, 음악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육성 등 국내외로 문화의 저변을 넓혀갈 방안을 차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광주 문화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콘텐츠 산업 육성은 오는 2015년 개관할 아시아 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과 직결된다. 또 '문화가 국력인 시대'에 아시아 문화를 주도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은 박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5년 개관한다. 새정부의 문화정책이 가장 먼저 결실을 맺을 사업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인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문화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남다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는 "대통령이 강조한 문화산업이 광주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광주에 들어설 CT(문화기술)연구원이 광주문화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에 맞는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광주를 창조형 미래 경제·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없는 개관,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선정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오는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없는 개관을 위해 정부가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전당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관에 맞춰 전당이 당초 목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운영 인력 등 조직을 하루빨리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부가 내세운 문화정책과 가장 부합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정 최우선 현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광주시 투자업체 못찾아 '우치공원 명품화' 무산

2년 공모 참여업체 없어…6월까지 새 개발계획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치공원 명품화 사업'이 투자업체를 찾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광주시는 26일 "우치공원 명품화 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없어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새로운 개발 계획을 구상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6월 금호로부터 민간위탁기간(20년)이 끝난 우치공원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500억~1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우치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민간위탁기간 종료 1년여 전인 2010년 7월 우치공원 명품화 사업 TF팀을 구성하고, 우치공원내 동물원 및 위락시설인 패밀리랜드 민간투자 사업을 공모했었다.

시는 당시 유일하게 제안서를 낸 금호의 20년간 330억원 투자 계획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재원조달 계획과 투자 기간 등에서 부적정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금호에 새로운 제안서를 요청했지만 2011년 12월 무산됐다. 광주시는 또다시 2012년 6월 제2차 공모를 냈으나, 이번에도 금호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호가 제출한 재원조달 계획이 1차 공모 때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2년 8월 제안서의 반려조치와 함께 명품화 사업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이미 운영계약이 만료된 금호와 '명품화 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위탁계약(유상사용허가·6개월 기준 사용료 1억7700여만원)을 체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운영계약이 끝난 금호에게 2년여를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6일 또 한번 금호의 유상사용허가를 연장해주기까지 했다.

금호는 지난 2년간의 추가 연장으로 패밀리랜드 놀이시설 이용료와 매점 등 수익시설 임대료 등 140억원대(연간 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치공원 연간 입장객은 2011년 32만명, 2012년 34만8000명이며, 순수 입장료만 2011년 2억8600만원, 2012년 2억6700만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품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운영자인 금호가 운영을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근거 없는 특혜설 등이 제기돼 오는 6월 30일 금호와의 유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공개위탁 공모 등을 통해 새로운 운영자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정홍원 총리 취임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42대 총리에 공식 취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272명에 찬성 197명, 반대 67명,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 총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실제로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관례대로 이날 저녁 취임식을 갖고 현충원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 총리는 취임식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무총리의 대임을 맡은데 대해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14년간의 검사와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약력 -

- 광주 금호고, 서울대 졸업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9기)
- 제2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 미국 UNC 로스쿨 국비 연수
-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변호사 김 준 성 올림

- 업무개시 : 2013. 2. 14.
- 개업소연 : 2013. 3. 7.(목) 오후 5시부터
- 개업장소 : 광주 동구 지산동 714-20 광주지방변호사회관 303호(법원정문 앞)
- 대표전화 : (062) 233-3030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